

## 로버트 피터슨 박사, 누가복음-사도행전 신학, 18회, 마셜, 3.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전, 4. 이방인 포용, 5. 교회 생활과 조직

누가복음-사도행전의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Howard Marshall의 세션 18입니다. 3.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전. 4. 이방인 포함, 5. 교회 생활과 조직.

우리는 하워드 마셜의 사도행전 주석과 함께 누가복음 신학, 특히 사도행전에 대한 강의를 계속합니다. 사도행전의 신학, 역사 속의 하나님의 목적, 사명과 메시지, 그리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진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를 둘러싼 반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22. 우리는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14:22. 누가는 예수님의 길이 그를 반대를 거쳐 법정 살인으로 몰고 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길도 반대에 둘러싸여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 복음에 대한 반대를 언급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확실히 반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전체 사역은 기본적으로 그의 사법 살인으로 끝났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날 사도들의 조롱으로 시작하여 산헤드린이 예수에 대해 침묵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계속됩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 순교자 스테반의 죽음과 그의 죽음 이후에 이어진 박해의 물결로 급속히 절정에 이릅니다. 한 유대인 왕이 야고보를 죽임으로써 백성의 환심을 사려 했으나, 오직 기적만이 베드로를 같은 운명에서 구해냈습니다. 선교사들이 로마 세계로 진출했을 때 그들은 반대에 시달렸습니다.

대개는 이방인의 전도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은 선교사들에 대한 폭력 행위에 있어서 이교 동조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때때로 선교인들이 치안판사 앞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후자의 태도는 양면적이었다. 때때로 그들은 치안 위반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즉결 재판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그들은 선교사들의 옹호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선교사들의 활동이 로마법과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편견 없고 사심 없는 법의 옹호자로 보입니다.

패러다임 사례는 바울의 사례이며, 그의 포로 기간에 할애된 놀랄 만큼 많은 공간을 가져온 것은 이 주제에 대한 누가의 관심 때문이다. 여기에서 누가는 바울이 로마 법을 범하지 않았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단지 법적 기술 때문에 로마 총독에 의해 석방되지 못했다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야기는 로마 총독들이 그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면제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총독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호의를 얻고 피고들로부터 뇌물을 요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보다 더 적은 것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가는 삶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결백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불공정의 희생자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관한 한, 바울에 대한 비난은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는 것, 더 일반적으로는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 이단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체포 구실에 불과했던 첫 번째 혐의는 단순히 거부되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법을 준수하는 유대인 숭배자로 소개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난은 바울이 단지 구약에 규정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을 뿐이며 자신의 신념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바리새인이었다는 주장으로 반박됩니다. 즉, 기독교는 진정한 유대교이다. 이 기본 요점은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일부 바리새인들은 이에 동조했지만 유대인들과 냉담한 관계를 맺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서도 누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성취라는 기독교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냉엄한 현실을 제시할 뿐입니다. 동시에 누가는 로마인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유대교의 합법적인 발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제국 내에서 용인되는 종교와 동일한 특권적 지위를 받아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 이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신학적인 것이며 로마법의 인식 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반대에 직면하여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견뎌야 하는 환난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서 충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파 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를 거부하는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설교를 계속하는 것이 금지된 도시에서 물러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전도를 계속할 뿐입니다. 복음 명령은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충실하게 증거한 후에는 다른 곳으로 나아가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누가복음 9:5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동네에서 나갈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 떠날 때 그들은 단순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인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Paul,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법정을 참을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합니다. 증인.

그의 관심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15절까지. 누가복음 21:12.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어서 이르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손에 넘겨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방인의.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옥에 갇힐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반대는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법정에서 등장한 베드로와 스테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사실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승리의 전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선교사들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제거해 주지는 못하지만, 때때로 그들은 적들로부터 신성한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서도 루크의 리얼리즘이 드러난다. 제임스는 죽지만 피터는 살아남아 또 다른 날 싸우게 됩니다.

바울은 온갖 장애물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무사히 이송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목적은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취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입니다.

넷째, 신학적 주제이다. 그리고 우리 이거 본 적 있어? 사도행전과 그 가르침을 다루면서 우리가 상담한 모든 저자는 이방인의 포용을 강조하며,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진행되면서 성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일어날 증거를 위해 당신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성취될 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네 번째 주제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어로 이방인 포용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방인 선교에 기초하여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엄청난 긴장을 반영합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는 예수님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교회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널리 퍼져 있는 대중적 믿음과는 달리, 누가는 오순절 날 유대인 개종자들 외에 이방인들이 참석했다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행 2:10). 그러나 몇 년 안에 교회는 할례받지 않은 사마리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진행을 신성한 뜻과 예언으로 봅니다. 그것은 교회의 의식적인 계획과는 별개로 일어난 사건의 전환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교회의 부흥이 유대교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점이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으로 살면서 자녀에게 할례를 베풀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물론 율법의 해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도 친히 특정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자유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 개종자들에게도 동일한 생활 방식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참되고 합당한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약속된 메시야가 오셔서 그의 백성에게 부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이 쉬운 가정을 방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고, 단순히 예수를 메시아로 하는 기독교 메시지를 통합함으로써 1세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쉽게 진화했습니다. 제외되었습니다. 쉬운 움직임이 없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교는 진리에서 멀어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참으로 따르지 않았으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신을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비난한 사람은 바로 스테반이었습니다. 놀랄 것도 없이, 이 공격은 유대 지도자들의 강한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우리는 스테반의 견해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즉시 공유되지는 않았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유대교가 교회에 반대하고 그 견해를 이단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교 교회에 대한 반대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 교회의 성격과 생활 방식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누가가 교회의 본질을 상상한 방식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견해는 그가 그것을 본질적으로 유대인 기관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 회개를 거부한 유대인들이 그들에게서 끊어지고 믿는 이방인들이 합류할 수 있는 백성. 다른 견해는 누가가 하나님의 목적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로 구성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집합으로 보았으며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점진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아마도 이러한 극단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누가는 교회의 유대적 기원과 구약 예언의 뿌리를 강조하지만, 교회가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유대교의 성취를 발견할 수 있지만 이방인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되려고. 이 두 가지 견해 중 첫 번째는 Jervel 이라는 학자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유대인이며, 유대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회개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교회에서 스스로 끊어지고, 믿는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 운동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이스라엘이며, 누가는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점진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다른 견해. 마샬은 진실은 그 사이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부정해지는 일 없이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까? 둘째, 이방인들이 단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 참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할례를 포함하여 유대 율법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확신했지만, 이 해결책으로 인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겪었습니다. 수년 동안 엄격하게 법을 준수하는 유대인 기독교인 그룹은 팔레스타인에 나머지 교회와 격리되어 계속 존재했습니다.

누가는 초기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베드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환상은 그에게 더 이상 깨끗한 음식과 부정할 음식의 구별이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빨리 베드로의 견해를 공유하게 되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위장하는 것에 대해 면전에서 비난한 것처럼 그조차도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왔을 때, 그는 이방인들을 떠나 유대인들과 함께 갔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야, 네가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다소 위선적이었고 자신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선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안디옥의 대표자들을 만났을 때, 받아들여진 근본적인 요점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음식,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 유대인 방식으로 도살하지 않은 고기를 삼가하고 유대인의 성행위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유대인 동료들을 소외시키는 일을 피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미 받아들인 규칙과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유일하게 정말 어려운 점은 고기에 관한 규칙이었으며 이는 유대인과의 일반적인 식사에만 적용되었을 수 있다고 Marshall은 지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선교의 타당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규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효한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국가적,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열성적인 압력이 커지면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아마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고린도전서 9장에 따르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으로 살았지만,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양심에 얽매이지 않고 유대인으로 살았으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항상 자유를 행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한 형제자매를 위해서나 복음의 자유가 없는 전도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자유로이 순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규정이 길거나 광범위하게 통용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아마도 폐기되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20절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면 고기에 관한 판결은 조용히 폐기된 것처럼 보입니다. 일곱 교회 곧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몇 가지가 있노라

거기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들로 음식을 먹으며 우상에게 제사하며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불멸이 아니라 부도덕입니다. 20절, 두아디라 교회라.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니라 그가 자칭 선지자라 하고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라.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누가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정기적인 관행은 지역 회당에서 그의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에만 그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했다는 인상을 거의 받았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행전 13, 46장이 이에 대한 명백한 사례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기심 때문에 이고니온 성을 선동하여 바울을 반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나를 사로잡는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조롱하고 소란을 피우며 설교를 계속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 필요하거니와 너희가 스스로 물러나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였으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니 이방인 선교는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은 후에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먼저 유대인을 위한 것이요 또한 헬라인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롬 1:16).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그의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선교사들이 그들을 향해 발에서 먼지를 떨어내고 이방인들에게로 향했을 때 상징되었습니다. 내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13장 46절의 요점은 사도행전 28장, 25장부터 28장까지의 절정에서 엄청나게 강조되어 반복됩니다. 그것은 거의 똑같은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다는 것을 너희는 알게 하라. 그들은 마음이 강퍽하고 눈이 멀고 귀가 막힌 사람들에 관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한 후에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도행전에는 없는 한 가지 요소는 누가복음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 34장 이하.

예루살렘을 두고 애도하라. 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예수께서 탄식하셨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성읍이니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네 집이 버림받았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좋은 질문. 사도행전에 이 내용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1~44장.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시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너를 둘러에 바리새를 쌓고 너를 둘러싸고 사방으로 가두어 땅에 엎드러지게 할 날이 이를 것임이라. 당신과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의 아이들. 그리고 네가 보살핌을 받는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쌓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목해 보세요. 그들의 말은 심판의 말이지만, 구원하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비애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일종의 역설로 정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쉽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그러한 것들에 관한 모든 거친 부분을 평탄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1장, 종말론적 담론, 행 21:20. 그러나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성 안에 있는 자들을 떠나게 하라. 시골에 있는 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밴 여인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할 것임이니라.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나라 가운데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복음에서 주님이 거절당한 장소로 묘사되는 예루살렘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곳, 영이 부어지는 곳, 교회가 사역을 시작하는 곳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거부하여 정죄받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공식적인 유대교이다. 다섯째, 교회의 생활과 조직.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없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생활과 조직.

누가는 의심할 바 없이 그 시대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패턴으로 교회의 삶과 예배에 대한 그림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2-47과 4:32-37의 간략한 요약에서 우리는 가르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기 위해 함께 모이는 소그룹의 모습을 얻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는 특히 교회 생활에서 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영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 소유이며 기쁨과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은 특히 영이 충만하여 자신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사도행전이 때때로 성령행전으로 묘사될 정도로 교회가 지도자를 선택하고 전도 활동을 하도록 인도합니다. FF Bruce가 유명하게 했던 것처럼, Interpretation이라는 저널의 1973년 27권 166페이지와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의 행위를 인용한 이전 작가의 말입니다.

처음에 교회의 지도력은 장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후에 성장한 다른 교회들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지방 교회에는 장로들이 있었고 선지자와 교사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었는데, 그들 중 일부는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일부는 더 순회했습니다.

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임명되었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다를 대신할 사도가 어떻게 임명되었는지, 그리고 사도들을 보조할 일곱 사람이 어떻게 선택되었는지를 듣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사들을 파송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에 어떻게 장로들을 임명했는지 간략하게 듣습니다.

이것은 누가에게 중요한 요소가 선택된 사람들의 영적 특성과 그들을 임명한 모임에서 영의 인도였음을 보여 주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또한 선교사들의 사업에 관해 뭔가를 배웁니다. 팀워크의 원칙은 처음부터 확립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선교사들은 세 명 이상의 그룹으로 여행했습니다. 베드로와 빌립은 이 규칙에서 예외였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누가의 표현 방식은 많은 독자들에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면밀히 연구해 보면 사실 바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중요한 인구 중심지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누가가 바울의 일의 원칙을 완전히 인식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바울의 여행이 잠깐 들르는 여행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증거를 확실히 제공합니다. 누가는 복음이 전파된 방식의 예로 여러 설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이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책임에 대해 말하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행 20:17-35).

에베소 장로들에 대한 그의 권고는 에베소에 일종의 원형 노회를 모았습니다. 이러한 선교적 설교와 유대인과 로마인 앞에서 재판을 받는 사도행전의 연설의 다양성은 의심할 바 없이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시된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문화인과 비문화인, 그리고 누가복음의 독자들이 자신의 전도에 사용할 모델로 설교가 제시된다는 인상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사도행전을 교화적인 것으로 특성화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자료입니다. Hentgen 이 사용한 용어는 약간 경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Hentgen은 사도행전의 역사성에 대해 실제로 의문을 제기하는 매우 비판적인 학자입니다. 이 책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고 존경할 만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누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초기에 확립된 패턴에 따라 어떻게 계속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기 위한 의도로 교화적입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두 기독교 지도자인 베드로와 바울의 경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으며, 예수와 바울의 생애 사이에도 어느 정도 유사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평행성을 자세히 식별하는 데 큰 독창성을 보여 주었고 아마도 그 존재를 과장했을 것입니다.

하워드 마샬(Howard Marshall)은 절제의 학자입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관점이 있고 여기에 또 다른 관점이 있으며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며, 누가 지상 주인의 삶에서 교회와 선교사들의 삶의 패턴을 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범이 특히 베드로, 특히 바울의 삶의 패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사도행전의 역사성과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누가복음-사도행전의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이것은 하워드 마샬의 18회기입니다. 3.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전, 4. 이방인 포용, 5. 교회 생활과 조직.